

News

은행들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'중금리대출'

매일경제

을 하반기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은행권에서 중금리대출을 둘러싼 경쟁 치열할 것으로 예상… 정부의 가계대출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주요 원인 토스뱅크, 을 연말까지 전체 신용대출에서 중금리대출 비중을 34.9%로 확대하겠다고 공언… 시중은행도 전월비 1.5%p 증가한 12.7% 비중으로 증가

가계대출 대목 앞두고… 은행들 추가 규제 '고삐'

데일리안

국내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로의 풍선효과 우려 중 특히 10월을 포함한 4분기는 통상적으로 연중 가계대출 수요가 많은 기간으로 꼽혀… 금융당국,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5~6% 상향 조정 계획 없다 언급

신한銀, LH와 공공분양주택 중도금대출 협력

연합인포맥스

신한은행, LH와 공공분양주택 중도금대출 협력…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수요자금 공급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실행할 계획

첫 협약 사업장으로 경기 화성 봉담, 과천 지식정보타운, 평택 고덕 등이 예정… 가계대출 증가 억제 노력 중 실수요자금 대출인 점을 고려해 8월부터 준비해왔다고 언급

10~11월에 한번 더? 한국도 금리인상 빨라진다

동아일보

을 한국은행 금융위 회의 10월 12일과 11월 25일 예정… 시장에서는 11월 추가 금리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어… 연내 0.25%p 추가 인상, 올해 모두 0.5%p 인상 전망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GDP 성장을 악화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낮아진다고 분석했으나, 현재로서는 금융불균형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

금감원, 운전자보험 피해자 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도하게 산정한 6개사에 시정 권고

조선비즈

금감원, DB손보, 삼성화재,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를 시정 및 다음달부터 시행 권고

보험사들이 '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'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해 피해자 통계를 내어 위험률을 높게 산출했다는 판단

장기인보험 시장, 올해 판 굳혀진다

한국금융신문

삼성화재, 현대해상, DB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의 지난달 장기인보험 매출은 467억 2,8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.7% 감소

삼성화재, 2019년 메리츠화재와 장기인보험 부문 매출 1위 자리를 주고 인수기준을 완화하고 담보별 가입금액을 높이는 등 치열한 경쟁

법원 "삼성증권 배당사고 회사 책임 인정…피해자에 50% 배상"

경향신문

삼성증권, 유령주식 배당사고 일어난지 3년 5개월 만에 증권사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

재판부, "삼성증권이 배당사고 당시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"이라며 삼성증권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…

미래에셋·한투 등 증권사, 해외법인으로 판 키운다

데일리안

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진출에 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어… 신흥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는 중

단순 브로커리지 업무를 포함해 현지 벤처기업 투자, M&A 주선, 채권 발행 등 IB 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추세… 국내 5개 대형증권사 올 상반기 해외법인 순이익 2,053억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